A Mother's Reckoning: Living in the Aftermath of Tragedy

Jee Hyun Ha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하 지 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저 자: Sue Klebold

출판사: Crown

출간연도: 2016 (ISBN: 978-1101902752)

가해자 가족의 마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진료실에서 각종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부터 학교, 가정,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부지기수로 만난다. 그들은 예기치 않던 사건이 인생에 일어난 일에 놀라고, 분노한다.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을 해서 잘 놀라고, 온몸은 긴장되어 있고, 밤에 잘 때에도 악몽에 시달린다. 이들에 대한 연구와 진료경험은 꽤 많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병의 개념도 확립되지 오래되었다. 그러다 간혹 10대 1의 확률 이하로 가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게 된다. 거의 모든 사례가 ‘처벌을 피하거나 감정받기 위해’ 병원에 찾아온 것이다. 폭력을 가한 원인이 정신질환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평가받고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피해자나 경찰, 학교 당국과 같은 곳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특징이 있다. 피해자와 달리 정작 가해자의 경우는 일부가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표

현하지만(표면적으로는 잘못했고 뉘우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 판단을 하거나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감정이 확 느껴지는 부분은 그들의 부모다. 부모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어떻게든 잘 마무리 짓기만을 바랄 뿐이다.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애도 피해자일지 몰라요.”

“제 아이가 소소한 말썽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 정도 사고를 칠 녀석은 아닙니다.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술이 원수죠.”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에게도 경찰이나 피해자 가족에게 하듯 미안해하고, 선처를 바란다. 한 편으로는 자기 자식에 대한 걱정이 다른 윤리적 이슈나, 부모 본인의 사회적 가치 판단을 덮어 버릴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아이가 벌을 받는 것, 인생이 망가지는 것만은 막고 싶어한다.

생존본능에 입각한 이 단계가 지난 후에 부모의 마음에 드는 두 번째 단계이자 더욱 강력히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왜’라는 것이다. 내가 아는 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자기가 아는 자식과 세상이 알고 있는 자식이 이렇게 다를지 몰랐던 것이다.

이들이 진료실을 나간 다음에 부모의 간절함이 준 잔향은 환자 본인이 준 느낌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최소한 이들은 진실하고 절실하였다. 특히 더 당황해하는 부모는 평소 ‘양육에 자신이 있는 사람’인 경우거나, 부모 본인이 반듯하게 살아가던 중산층인 경우다. 그들은 자신이 아이들을 속속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자신한다. 평소 자기만큼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부모를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아 왔다. 우리나라 많은 부모가 그러하듯 자기 자아의 연장의 측면에서 아이를 인식해 왔는데, 아이가

Address for correspondence: Jee Hyun Ha,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120-1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30, Korea

Tel: +82-2-2030-7569, Fax: +82-2-2030-7748

E-mail: jhnha@kuh.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엄청난 사고를 친 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해자 부모의 마음을 한 번은 찬찬히 들여다보고 깊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을 살다보면 절대 내게는 일어날 리가 없다고 여기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또 행여 피해자 측면이 된다고 해도 한 번쯤은 상대방의 마음을 가늠해 본다면 아주 조금은 호트러진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일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더욱이 정신치료자라면 가해자 부모란 특수한 상황은 한 번쯤은 만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될만한 책 한 권이 나왔다. 수 클리볼드(Sue Klebold)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A Mother’s Reckoning: Living in the Aftermath of Tragedy)’이다. 이 책의 저자인 수 클리볼드는 범죄심리학자도 저널리스트도 아니다. 1999년 4월 20일 이전까지는 두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바로 그날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레볼드라는 두 학생이 자신들이 다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들어가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를 살해하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부터 수 클리볼드는 평생 짊어질 멍에를 쓰게 되었다. 가해자의 엄마가 된 것이다.

이 책은 가해자의 엄마가 자신과 아들에게 면죄부를 달라고 호소하는 책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복기(復記)해 나가면서 도대체 딜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딜런이 어떤 아이였는지 낱알이 알리면서 ‘어쩌면 누구에게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고, 예방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세계의 불합리성이자 아이러니이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당사자의 입장으로 써내려 갔다. 그런 면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책이다.

저자는 “압도적인 수치감과 공포와 슬픔만큼이나 강한 알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에 따른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을지 모르는 조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퍼즐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배운 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자, 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일이 힘겹더라도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컬럼바인 이전에 누가 우리 삶을 들여다 보았더라도, 아무리 고배를 줌렌즈를 들이댔더라도 미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모습밖에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렇기에 처음 사건을 접하고 ‘아울 것이 왔구나’라는 마음이 아니라, ‘도대체 왜’라는 마음이

들고, 이것은 오해일 것이고, 큰 음모일지 모른다고 여기고 싶었을 것이다. 머릿속은 혼란 덩어리일 수밖에 없고, 부모가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로는 도대체 그 큰 사건을 저지른 범인과 맞닿는 접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 전년에는 에릭과 함께 문제행동이 있었지만 사춘기 아이들의 혼한 일탈로 보았고, 상담프로그램을 아주 성실히 받고 잘 끝마쳤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 곧 도시로 떠날 예정이었고, 졸업무도회도 갔다. 왕따도 아니고, 기괴한 요주의 인물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딜런은 어느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가해자는 이미 죽어버렸다. 그러나 그 이후의 주변의 시선을 온전히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의 가족들의 몫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게 양육의 잘못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 마음안에는 범죄가 부모 탓이라고 믿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집에서는 아이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 이런 재앙을 겪을 일이, 위험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끝난 후 오랜 시간 수 클리볼드는 복기에 복기를 거듭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이 책은 평화로운 일상에 충격사건이 일어나고, 그 범인이 딜런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시간순서대로 있었던 사건을 수의 관점에서 풀었다. 잔인한 언론의 관심, 경찰조사, 변호사와의 만남, 주변의 따가운 시선, 피해자 가족의 분노와 같은 전방위에서 벌어진 사건을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럴 리 없다는 부정과 먹먹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던 시기를 지나,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가서 슬픔과 죄책감, ‘왜’를 이해하며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썼다고 해서 그녀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그녀는 자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이게 악몽이 아님을 깨닫는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된다. 그녀와 남편은 여전히 그 사건이 벌어진 리틀턴에서 살고 있고, 자살예방활동가로 10년째 일을 하고 있다. 자살을 한 가족들을 만나고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으면서, 또 이제 그들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붙은 이름표를 알아본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하면서 수 클리볼드는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소설이 아닌 논픽션으로, 그것도 저널리스트의 탐사보도나 심리학자의 연구가 아닌 엄마가 쓴 서툰지만 생생한 글이다. 그래서 머리보다는 가슴이 먼저 울린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은 그녀와 가족의 마음 안

에 들어가 보는 것은 앞으로 다시 만나기 힘든 경험이 될 것이다.

책 속의 이 문장이 ‘내게는 벌어지지 않을 사건으로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이해를 설명한다.

오비디우스는 이런 금언을 남겼다. “고통을 반기라. 고통

에서 배움을 얻을 터이니.” 하지만 이런 고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 없다. 고통이 다가올 때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고통더러 떠나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